

사회정화추진운동전국대회에 즈음한 대통령 각하 유시

사회적 부조리, 부패부정심리 추방과 범국민적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을 표방하고 시작된 사회정화운동의 지난 3년간 추진성과 및 발자취를 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결집과 정화운동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사회정화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83사회정화운동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있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전국의 팔십만 사회정화추진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의와 부폐와 무질서를 과감히 추방하여 이 땅에 기필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사회정화의 횃불을 높이 치켜 들었던 3년전의 결연한 의지를 새로이 다지면서, 선진조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그 실천을 다함께 굳게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본인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온 전국의 사회정화추진위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조리 척결작업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정화운동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속에서 그 차원을 높여 이제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되고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정치부패의 근원이 되고 경제 등 다른 분야까지 오염시켰던 권력형 부조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풍토가 서서히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공직자들도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점차 갖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있던 만성적 비리와 부정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고, 거리질서 등 우리의 생활주변 모습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복지사회의 건설과 함께 맑고 밝은 정의사회를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이제 우리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이러한 맑은 물줄기에 흙탕물을 흘려보내는 오염의 원천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황금만능풍조가 빛어내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아직도 잔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몇몇 경제적 비리사건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오로지 내일에의 꿈과 보람을 소중히 가꾸어 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안겨준 불행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에 구조적 부조리와 부패심리가 아직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감스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같은 부정과 타락과 무질서의 병균이 싹틀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사회

악의 요인들이 자라날 수 없도록 우리 사회의 체질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가꾸어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 각자가 건전한 시민윤리를 확립하여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윤리과 탈법 대신 성실과 정직을 신조로 삼으며, 사치와 낭비 대신 검약과 분수를 지켜 나갈 때 정의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실히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선진조국창조의 과업도 국민 각자의 도덕적 각성과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토대 위에서만 그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물질적 풍요만으로 선진사회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번영도 건전한 국민정신의 뒷받침이 없이는 오래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 구시대의 폐습과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마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신면의 성숙도가 물질적 성장을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무질서와 부패심리는 물론 독선적 사고와 권위주의, 그리고 지연·혈연을 따지는 파벌의식 등 전근대적 의식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정화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준열한 자기성찰과 철저한 의식개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상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잔존하는 모든 비리와 사회적 모순을 찾아내서 제거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원적 치유에 앞서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사회정화운동의 일차적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끗하고 바른사회를 이루하여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처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무리들이 있어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집단은 지난 10월 「버마」에서 흉악한 만행을 저질러 우리 국민은 물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인의 규탄과 분노를 불러 일으킨지 미처 두달도 되지 않아 지난 토요일 밤에는 부산 대포 앞바다에서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도발을 또다시 자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경계망에 걸려 침투하던 무장간첩들이 모두 생포되었지만, 반성과 자숙은커녕 악랄한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저들에 대해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새로이 갖다듬어 철벽 같은 경계태세를 더욱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정화추진위원 여러분!

사회정화운동의 구심적 위치에서 우리 주위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여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냉소와 방관, 그리고 독버섯처럼 계속 돌아나는 각종 사회악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신념과 용기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시련이 훗날 반드시 알찬 결실과 보람으로 보답받을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사회정화운동의 보다 활기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면서, 부패심리와 물가오름세 심리 그리고 무질서심리의 3대부정심리 추방운동을 더욱 가속화하여 줄기차게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하는 맑고 밝은 정의사회를 이땅에 기어이 이루해 내도록 다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83년 12월 7일

대통령 전 두 환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정부는 금년도 사정활동사회기강 확립에 두고 명절, 연말연시에 의례적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운동추진 계획이다.

현황 진단

○ 80년 이후 추석, 휴가, 연말연시 등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을 반복 추진해온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향상

- 관민합동의 다각적 활동으로 명절관련 선물수수등 부조리 폐습 사례 감소
- 과거에 비해 많이 겸소해지고 물가극요 인도 억제

○ 아직도 자율적 노력 보다는 통제에 의한 억제경향

- 일부 획일적인 규제로 분위기 경직화 초래

○ 기업간의 선물 수수폐습은 상당수 잔존

- 그릇된 의식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명절을 상납 또는 예의를 앞세운 선물공여의 기회로 인식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관념
 - 공직자의 은근한 선물 기대 심리

대책

겸소한 명절보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전한 생활기풍을 정착·계승

- 공직자 기강쇄신

- 겸소·절약기풍의 진작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연말연시에 따른 부조리 폐습 유형

○ 망년회에 따른 낭비와 부조리

- 호화사치 망년회
- 망년회 명목으로 관련업자 접촉 금품수수 등

○ 일부 기관의 상납 풍조

- 공직자 상하간, 기관간

○ 신세진데 대한 담례, 세찬(歲饌) 명목으로 금전 또는 선물수수

- 집중단속을 피해 상당기간 전후 인사
- 상품명을 표시한 명함이나 물품구매권 등으로 위장
- 직접 만나지 않고 친분 있는 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별도 장소를 약속하여 은밀한 접촉·수수

- 친지를 가장하여 사무실이나 자택에 직접 방문

- 일부 산하기관에서 지역유지나 평소 친분 있는 민원인 및 업소로부터 촌지 유도

※ 지능적 전달방법이 신종 부조리로 발생

○ 일부 이권·이해관련 금품유인·수수

- 연말자금 수요에 따른 금융부문 및 경리 등 자금결제 관련 부서
- 납품 하청등 관련 기업간

○ 대목경기를 노린 물가자극 행위

- 매점매석, 폭리, 과대광고, 유사상품권 발매 등

실천 활동

중점과제

○ 공직자 ⇒ 연말연시 관련 선물·금품수수 일절금지
(대민, 상하간, 기관간)

대 공직자 금품공여 금지

○ 기업 ⇒ 납품·하청관련 금품수수 억제
유사상품권 발매금지

○ 일반사회 ⇒ 낭비, 부정외래품사용, 물가자극행위추방

교육 및 계도활동

○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설득력있게 접근
○ 공직자 사회지도층 솔선으로 국민일반에 전파 확산

○ 각급기관·단체가 역량을 최대발휘하여 자율적 추진

가는 연말 검소하게

오는 새 해 알뜰하게